



통일 대비 간호교육 통합 방안 마련해야

통일간호학회-통일간호포럼 학술대회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보건 의료제도 및 간호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북한 간호교육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2회 통일간호 학술대회가 '북한 간호교육 체계의 이해 및 교류 방안 모색' 주제로 11월 30일 열렸다. 통일간호학회가 주최하고, 통일간호포럼이 주관했다.

개회사를 한 강윤희 통일간호학회장은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통일 대비 보건 의료 및 간호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한의 보건 의료제도 및 간호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북한 간호교육 통합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한 신경림 통일간호포럼 대표는 "통일 대비 남북한 간호교육 통합 방안 초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간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한 보건 의료협력사업-KOFIH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 강연을 한 최현주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대외협력본부장이 북

한의 보건 의료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남북한 간호교육 체계의 방향' 주제 강연을 한 김미영 통일간호포럼 부대표가 남북한 국민들의 건강상태, 간호교육체계와 면허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북한의 간호교육 현황' 주제 강연을 한 정전희 통일부 간호사무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간호교육체계, 간호업무 등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한 간호용어의 차이와 이해' 주제 강연을 한 오승진 통일간호포럼 사무국장은 "남북한 간호용어 정리는 간호인력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업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2편이 발표됐다.

통일간호포럼은 2016년 3월, 통일간호학회는 2017년 9월 창립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간호체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통일간호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통일간호학회 총회가 열렸으며,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남북한 간호교육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간호교과서 개발을 준비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충북간호사회 '간호정책 아카데미' 개최

오제세 국회의원 초청 특강

충북간호사회(회장 박미숙)는 2018년도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11월 23일 개최했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보건 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대해 특강을 했다. 회원들은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현상 및 처우 개선 관련 대책방안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충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숙 회장은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11배 증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11배 증가했으며,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4배 정도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조중목)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2만 9262건으로 200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환자 중 남자 비율은 64~65%로 여자보다 약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는 70% 이상이 질병에 의해 발생했다. 주요 질병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며,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2006년 대비 각각 3.8배, 8.5배 증가했다. 전체 생존율이 증가한 반면 지역 간 생존율 차이는 2006

년 4.2%p에서 2017년 8.6%p로 2배 증가했다.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 간 차이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6년 1.6%p에서 2016년 7.3%p, 2017년에는 5.9%p 증가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17년에는 21.0%로 2008년 1.9%에 비해 약 11배 증가했다. 지역 간 시행률 격차도 2008년 2.5%p에서 2017년 26.9%p로 함께 증가했다.

하정열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환자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장정지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심장정지 조사·감시 자문위원인 오동진 한림대의 심장내과 교수는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정부의 노력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조사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배우기 간협, KNA와 함께하는 신입간호사 데이

대한간호협회(KNA)와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 마리안느와 마가렛과의 만남'을 주제로 'KNA와 함께하는 신입간호사 데이' 프로그램을 세 차례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통해 존중과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희망사회를 만들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간호사 120여명이 전국 권역별로 3개 팀으로 나뉘어 참가했다. 1차는 11월 8~9일, 2차는 11월 15~16일, 3차는 11월 29~30일 소록도에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사장인 김연준 소록도성당 주임신부의 강연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야기'를 들었다. 한센 병박물관, 중앙공원 등을 방문해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간 생활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돌아봤다. 이어 거금도 몽돌해변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운동

대한간호협회는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두 간호사의 간호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를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7개 언어로 서명 사이트(mm.kna.or.kr)를 운영하고 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시상하는 제6회 간호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일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진행됐다. 전남간호사회 장영숙 회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상패는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전달됐다.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티거(84세, 한국이름 고지선)와 마가렛 피사렛(83세, 백수선)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구호단체 대미재단을 통해 마리안느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남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 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했다.

20대에 소록도를 찾았던 두 간호사는 70대 노인이 되어 소록도를 떠났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줄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떠



갔다.

마리안느는 대장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됐다. 마가렛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소록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았다"고 말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간호사, 엄마, 소록도 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 국민훈장, 국민포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국립소록도병원엔 2006년 두 사람이 생활했던 공간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으로 명명했다. 이곳은 2016년 등록문화재 제660호로 지정됐다.

후면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제작돼 2017년 4월 20일 개봉했다. 소록도 100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이 지원하고,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기린제작사가 제작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독자주소 변경 ☎ 02)2260-2571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세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40630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이직방지 교육지원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생한 간호술기 숙달교육을!

전국 권역센터 상시 실기실 운영!

- 대상 : 실기 교육을 희망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 내용 :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간호술기 15가지
- 강사 : 센터 강사표준화 교육 이수자

※교육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병원 또는 중소병원의 재직간호인력



신/규/간/호/사

연간 10,000명 이상의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

서울·강원	02-2268-2632~3	부산·울산	051-442-3824~5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
대전·충북·충남	042-825-078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표 전화 **1522-1755**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